

제12회 대한민국멀티미디어기술대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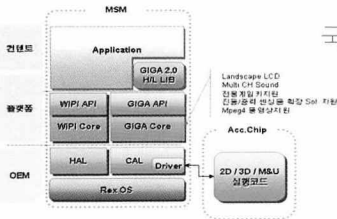
정보통신 핵심 기술과 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12회 대한민국 멀티미디어 기술대상'에서 삼성전자의 Slim DLP TV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대통령상을 비롯해 7개 제품과 기술이 수상했다.

정리 | 편집부



대통령상 삼성전자 벽걸이형 Slim DLP 프로젝션 TV

대상을 수상한 Slim DLP TV는 PDP TV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과 대형 화면, 실감나는 동영상과 함께 본격적인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비한 양방향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DLP TV의 장점인 화질의 우수성을 최대한 살려 Full HD급 화질(1080p)을 제공하는 미래형 TV이다.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화질 개선 기술을 탑재해 마치 디지털 영화관에 있는 듯한 느낌의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양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OCAP(Open Cable Application Platform : 국내/미주 cable 데이터 방송)/ACAP(Advanced Common Application Platform : 국내/미주 지상파 데이터 방송) 기술을 탑재하여 별도의 STB없이 Cable-Card만으로 방송을 수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방향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국무총리상 SK텔레콤 WPI용 모바일 3D 게임플랫폼 (GIGA Platform)

GIGA는 Graphic Instruction Graphic Acceleration의 약자로 그래픽 가속 기능을 제공하는 H/W 가속 칩과의 인터페이스 규격 기술을 의미한다. 일반 PC환경에서만 지원할 수 있었던 고품질의 3D게임을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즐길 수 있고, 고품질 사운드, 진동 솔루션, 중력 센싱 등 다양한 확장 하드웨어 솔루션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 단말의 표준 플랫폼인 WPI와 연동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3D 그래픽 성능을 이동통신 단말상에서 구현했고,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WPI 플랫폼 단말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임으로써 향후 WPI 서비스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장관상(하드웨어부문) 솔리토닉스 Sonic Ray System

정통부장관상을 수상한 소닉 레이 시스템은 소리를 빚쳐럼 한 방향으로만 보낼 수 있도록 개발된 초지향성 스피커 시스템으로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상용화되었다.

이 시스템은 초음파가 공기 중에서 일으키는 비선형적인 간섭의 원리를 이용해 초지향성의 가청음을 재생하도록 설계되었다. 가격, 크기, 무게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외국의 경쟁사에 비해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솔리토닉스는 이번에 출시한 제품을 기반으로 PMP, DMB, Wibro, PSP 등의 휴대형 기기 뿐 아니라 모바일 폰에도 적용 가능한 소닉 레이 포터블과 모바일 솔루션을 개발중이다.

정보통신부장관상(소프트웨어부문) **카디날정보기술 iMusic 솔루션**



iMusic 솔루션은 실시간 보안 스트리밍 솔루션으로 유무선상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려는 사업자에게 음악 재생을 안전하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높은 호환성과 이식성을 갖고 있어 별도의 서버 운용 없이 스트리밍 서비스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이중 IIR 필터링을 통한 음원보정 및 에러 자동 복구 기능이 있고, ALB(Auto Load Balancing)를 통한 웹 서버 및 DNS 장비의 부하를 분산시켜 고가의 IP Switch 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실시간 스트리밍 DRM을 적용해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 접근과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 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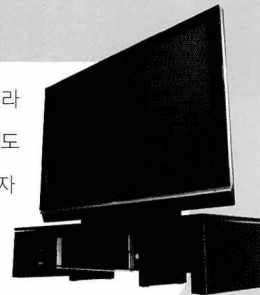
정보통신부장관상(콘텐츠부문) **인비넷 음악교육 콘텐츠 (아이피아, 톤팀 어드벤처)**



음악의 미적 특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반응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음악교육 콘텐츠다. 6개의 큰 주제로 구성된 게임형 청음학습 콘텐츠와 음악학습에 필요한 기본 지식들을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크게 3단계(100차시)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와 실시간 상호작용을 위한 쌍방향성을 극대화해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클릭하며 따라할 수 있다. 특히 휴대할 수 있는 피아노로 언제, 어디서든 쉽고 재미있게 연주하는 체험학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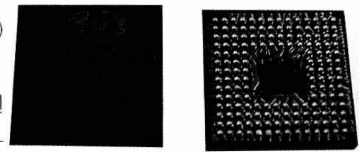
정보통신부장관상(인터넷정보기전부문) **삼성전자 102인치 Movie-Box PDP TV**

삼성전자는 현존하는 TV로는 세계 최대인 102인치 Full HD급 Movie-Box PDP TV를 개발했다. 휘도 1,000 칸델라(cd/m2), 명암비 2,000:1을 구현하여 초대형 화면에서의 휘도와 명암비 한계를 극복한 제품으로 동화상 표현에 있어서도 8,192계조, 5,490억 칼라를 구현하여 대화면에서 생동감 넘치는 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 주변 밝기에 따라 최적화 되는 자동 휘도 조절 기능을 통해 소비전력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비자 취향에 따라 6가지 컬러를 선택적으로 다른 색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변환할 수 있는 "My Color Control" 기능을 탑재하여 차별화된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장상 **버추얼다임 3D 가속칩 'F3D 패밀리'**

버추얼다임이 개발한 F3D(Feel3D) Family는 3D 가속칩으로 휴대폰과 휴대용 mobile 기기(PDA, PMP 등)에서 완벽한 3D 입체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HW 가속 ASIC이다. 이 제품의 성능은 일반 PC나 게임기에 버금가는 3D Performance와 함께 2D를 가속해주는 기능을 지원해 최상의 Multimedia 3D Contents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F3D1000은 현재 삼성 게임폰인 SPH-G1000(KTF형)과 SCH-G100(SKT형)에 적용되었다. 이는 국내 모바일 단말기 시장에서 최초로 핸드폰에 적용되어 상용화에 성공한 것으로 단말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사장상 **에이치디기획 디스피아 멀티미디어 영상제어시스템**

디스피아 멀티미디어 영상제어시스템(이하 디스피아)은 PDP, LCD 전광판을 비롯해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해 매장, 학원, 회사, 관공소 등에서 자기광고, 홍보방송을 사진, 동영상, 플래시, 사운드로 표현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전광판에 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방송시스템이 필요한 곳에 저가로 멀티미디어 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동영상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 모든 멀티미디어 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

